

WGBI 편입 앞둔 韓 국채시장 장기물 등 ‘선유입’ 기대 이하

WGBI 편입 호재에도 시장 조용
고환율·금리 상단 등 압력 작용
“보수적 유입 기대치 50조 내외”

오는 4월부터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 지수(WGBI)에 8개월에 걸쳐 단계 편입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선유입(프론트런)’ 흐름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환율·금리 상단 환경에서 자금 유입이 지연되면 환율 안정 기대가 약해져 한국은행의 통화완화는 가능성보다 ‘속도조절’이 먼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FTSE 러셀(Russell·WGBI 운용사)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을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매월 동일 비중(8개 트랜치)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편입이 ‘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월별 집행 강도와 유입 속도가 변수가 되는 구조인 만큼, 실편입을 앞둔 장기·초장기물에서 선제적 매수 흐름이 나타나는지가 첫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다만 선유입의 전형적 징후로 여겨지는 ‘장기물 듀레이션 확대’가 아직 확인

되지 않았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수 편입을 앞둔 장기·초장기물의 적극적 매수세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존에 70조~80조원대로 거론됐던 유입 기대치도 보수적으로 50조원 내외로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유입이 약한 배경으로는 ‘환율 변동성’과 ‘주적오차(트래킹 에러) 리스크’가 먼저 거론된다. 고환율 구간에서 패시브 자금이 환차손 부담과 헤지 비용을 감수하면서 선취매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고,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로 채권형 자산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지수 추종 AUM(운용자산) 자체가 줄어 유입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본계 자금이 편입 초기 관망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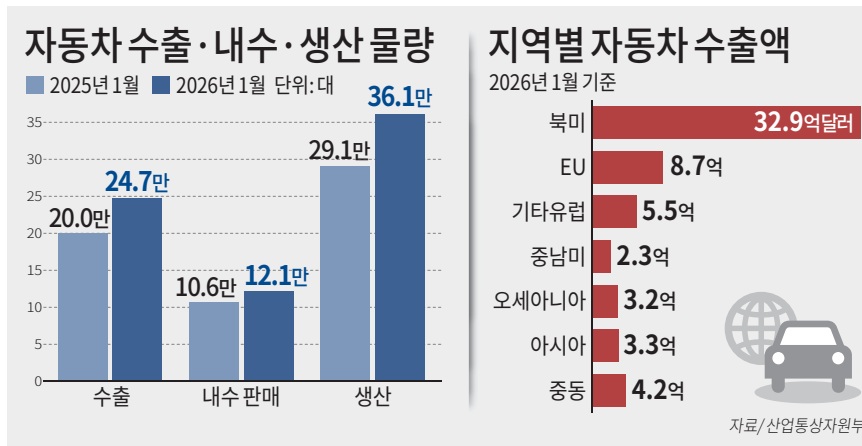
보고서는 WGBI 추종 패시브 자금의 상당 부분이 환노출(언헤지) 운용 성격을 띠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금리로 번 수익이 환율 변동에 의해 쉽게 상쇄될 수 있다고 짚었다. 원화 약세 압력이 멈추고 하향 안정화되는 시점

이 확인된 뒤 진입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우위가 될 경우, 4월 실편입 구간에서도 ‘최소한의 비중 맞추기’ 외 추가 유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WGBI 편입이 ‘환율 안정→금리 부담 완화→완화 여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약해지면, 한은은 경기보다 환율·금융안정(가계부채·주택시장) 변수를 먼저 점검하는 ‘속도조절’ 논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앞서 한은은 지난 1월 통화정책방향에서 “높아진 환율이 물가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환율·수급 쏠림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언급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4월 WGBI의 실편입은 ‘수급 개선의 마중물’ 역할은 하겠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금리 급락이나 환율 안정을 즉각적으로 이끌어내기에는 대외 여건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금리 급락이나 환율 안정을 이끄는 ‘게임 체인저’보다는, 장기적인 원화 채권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구조적 하방 지지선’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1월 자동차 수출 60.7억달러… 역대 2위

수출·내수·생산 ‘트리플 증가’

올해 1월 자동차 수출과 내수 판매, 생산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 연휴가 2월로 늦어지며 조업일수가 늘었고,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월 자동차 수출액은 60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7% 증가했다. 이는 2024년 1월(62.1억달러)에 이어 역대 1월 중 2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지난해 설 연휴가 1월(1.25~30)에 포함돼 조업일수가 올해보다 3일 적었던 기저효과와 함께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친환경차(전기차·수소전기차·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출은 25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8.5% 증가하며 역대 1월 중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7억1000만달러로 85.5% 급증했고, 전기차는 7억8000만달러로 21.2% 증가했다.

수출 물량 역시 24만7000대로 23.4% 늘었으며, 이 중 친환경차는 9만2000대로 51.5% 증가했다. 전체 수출 물량에서도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37.4%로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북미 수출이 32억9000만달러로 25.7%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미

국은 26억5900만달러로 19.2% 늘었다. EU는 8억7100만달러(+34.4%), 기타 유럽은 5억5100만달러(+44.8%)로 유럽 시장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외 중남미(2억3400만달러, +34.1%), 오세아니아(3억2200만달러, +30.2%), 아프리카(4700만달러, +74.8%) 등도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아시아는 3억2500만달러로 30.1% 감소했고, 중동은 4억1600만달러로 소폭 감소(-0.4%)했다.

1월 내수 판매는 12만787대로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했다. 국산차는 9만8058대(+9.6%), 수입차는 2만2729대(+37.9%)를 기록했다. 차종별로는 쏘렌토(8388대), 스포티지(6015대), 카니발(5278대), 아반떼(5244대), 소나타(5143대) 순으로 내수 판매가 많았다.

특히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5만7584대로 48.3% 증가하며 전체 내수의 4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1만98대로 무려 507.2% 급증했다.

생산량은 36만5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24.1% 증가했다. 트랙스(3만대), 아반떼(2만4000대), 코나(2만3000대), 스포티지(2만2000대), 팔리세이드(1만9000대) 순으로 생산이 많았다.

완성차 5사 모두 생산이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전기차 전용 설비 구축 등으로 부산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던 르노코리아의 경우 전년 3000대에서 올해 5만6000대로 무려 18배나 늘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李, ‘HMM 부산 이전’ 재확인… “곧 하겠다”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강조
내달 HMM 주주총회 이목집중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19일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하겠다”며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구상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의 본사 이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글을 재게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재게시한 전 장관의 글은 이재명 정부 들어 성사된 부산 지역 현안 사업들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 6개월 만에 깜짝 놀랄 성과들이 있었다”며 “부산 해양수도특별법이 제정됐고, 2028년 3월 부산해사법원이 개청한다. 북극항로



범정부 추진 기구인 북극항로추진본부가 해양수산부에 설치됐다.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이전은 전 전 장관 재임 시기인 지난해 12월5일 결정됐다.

이 대통령도 이를 공유하며 이른바 ‘5극 3특’ 전략에 따른 해양수도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HMM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그간 노조 반발과 민영화 문제 등이 겹치며 찬반 공방이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곧 한다”고 못박은 셈이다.

거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보고를 받던 중 “HMM은 언제 옮긴다고 하던가”라며 “나머지 해운선사 목록을 다 뽑아 봤다. 설득해서 부산으로 옮길 곳이 있나”라고 물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서인지, HMM의 대주주인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최근 해운업체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해운협회가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했다.

또 HMM 부산 이전에 반대해왔던 노조가 일부 부서의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오는 3월 HMM 주주총회에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을 올릴 경우, 부산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지금 안 사면 늦는다”… 포모심리 확산

>> 1면 ‘코스피 5600 질주…’서 계속

전문가들은 반도체 영업이익과 수출 실적, 세계 인공지능(AI) 수요 등을 근거로 한국 증시 ‘매수’ 신호를 유지하고 있지만, 투자 과열을 우려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권유했다. 쏠림이 커질수록 코스피가 특정 이슈에 과도하게 흔들리는 취약한 구조에 빠져들 수 있어서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AI)

I) 수익성 논란 등 반도체 수익에 대한 낙관적인 흐름에 흠집이 나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이른바 포모(FOMO) 심리도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기 투자자의 성과 인증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세금 뺀 돈 3억원 들고 반도체에 들어간다” “삼성전자에 다 걸겠다”는 글도 잇따랐다. KB증권은

올해 전 세계 영업이익 상위 10대 기업 중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비중이 9%(1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 메모리 출하량의 70%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업체가 흡수하고 있어 구조적 수요 기반이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로는 24만원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6원 오른 1445.5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기준)를 마쳤다. /신하은 기자 godhe@